

금호타이어, 노동계 적폐 '고용세습' 없앤다

노사 단체교섭 통해 19년만에 조항 삭제키로 현대차도 폐지 검토...기아차 올 단협 없어 미뤄질 듯

금호타이어가 이른바 '고용 세습'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현대차도 올해 단체교섭에서 폐지를 검토키로 하는 등 주요 대기업 노조가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가로막는 '노동계 적폐'를 청산키로 해 주목된다.

◇금호타이어, 19년 만에 '고용세습' 폐기 16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사는 '2018년 단체교섭' 과정에서 고용 세습 조항을 삭제키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오랫동안 적용하지 않았던 사문화된 조항이지만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폐기하는 쪽으로 결정했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지난 2000년 만들어져 대표적 노동계 적폐로 꼽혔던 조항이 19년 만에 사라지는 셈이다.

년조항이 있었을 경우에는 입사 결정 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 가족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용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해당 조항이 채용 과정에서 차별 금지와 균등한 기회 보장을 규정한 고용정책기본법 등을 위반한 것임에도, 노조는 정년 퇴직자가 요청하면 공개 채용에서도 그 직계 가족을 우선 채용토록 하는 사실상 '일자리 대물림' 조항을 바꾸지 않았다.

사측이 지난 2016년 임·단협 과정에서 수정을 제의했지만 당시 노조는 조합원 권익을 내세워 관련 협약 수정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그릇된 관행을 버리지 않았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그러나 올해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악의 고용 소크 상황으로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고용 세습' 조항을 폐기하기로 했다.

◇현대차, 올 단체협약에서 없애기로=현

대차 노조도 조합원 자녀의 우선 채용 조항 폐지를 검토키로 했다.

노조는 지난 11일 소식지에 '조합원 자녀 채용 가산점제'를 폐기하는 것을 올 단체교섭에서 검토하겠다고 올렸다.

노조는 "2011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단 한 번도 적용하지 않았던 사문화된 조항으로 국민들과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금숙노조 차원에서 논의, 올 단체교섭에서 제도 폐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노조는 올해 단체협약 교섭에서 단협협약 별도회의록에 명시된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삭제키로 지난해 11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바 있다.

별도회의록에는 '정년 퇴직자 또는 25년 장기근속 조합원 자녀와 일반 입사 지원자 조건이 같으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아차 노조는 올해 단체협약이 없어 고용 세습 조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해 이뤄진 단체협상에서 회사측이 요구한 장기근속 근로자 자녀에 대한 채용 특혜 폐지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아차 노조 단체협약(27조 1항)에는 '회사는 신규 채용시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고 있다. 고용세습이 엄연한 불법이라는 점에서 사측이 매년 임단협 과정에서 철학을 제의하고 있지만 노조가 거부 방침을 고수하면서 수정되지 못한 채 유지되고 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현대차와 금호타이어 등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 내려놓기에 동참한 만큼 기아차 등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이 담겨있는 기업은 금호타이어, 현대차, 기아차 등 15개 업체로 집계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06.10 (+8.92)	↑ 금리(국고채 3년) 1.80 (+0.01)
↑ 코스닥 693.38 (+2.99)	↓ 환율(USD) 1120.10 (-0.60)



광주은행 중서민 고객 '따뜻한 신용대출' 판매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15일부터 '따뜻한 신용대출' 상품을 판매 중에 있다고 밝혔다.

'따뜻한 신용대출'은 신용등급(CB) 4등급 이하인 중서민 고객들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기타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연소득 및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1백만원에서 최고 1억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중·저신용 고객들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기간 설정이 가능하며, 모바일 서류제출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서민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주은행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상품으로 새희망플러스대출, 사잇돌중금리대출 등 정부 정책의 서민금융상품과 함께 중서민 대상 금융지원 주력상품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은행 송종욱 은행장은 "최근 금리 인상과 어려워진 경기상황으로 인해 고금리 대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중서민들이 경제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과 동행하는 광주은행은 중서민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고금리 대출 이용에 따른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따뜻하고 포용적인 금융을 실천해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의 대표 은행으로서 지역민의 금융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주 수소차 급증 202대 출산 345대 이어 2위

광주지역 수소차가 5배 이상 증가했다. '수소차 허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시도로 보이지만 수소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보급 실적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울산은 지난해까지 모두 345대의 수소차를 등록,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소차가 돌아다니는 도시로 이름을 올렸다.

16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2018년 말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에 따르면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는 전국적으로 46만1733대로 집계됐다. 전년도(33만9134대)보다 12만 2599대가 늘었다.

광주의 경우 전기차 1447대, 하이브리드차 1만870대, 수소차 202대 등 1만 2519대가 친환경차로 등록됐다.

수치로는 전남도(전기차 548대, 하이브리드차 8735대, 수소차 36대) 9319대보다 3200대 늘었다.

전남에서는 1만4103대의 친환경차(전기차 1974대, 하이브리드차 1만2127대, 수소차 2대)가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친환경차 등록대수로 보면 경기도(11만 8346대), 서울(8만4826대), 인천(3만 1154대), 대구(2만7881대), 제주(2만 4529대), 경남(2만4472대), 부산(2만4380대), 경북(1만9490대) 등으로 많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남도한바퀴 겨울테마상품 인기

금호고속(사장 이덕연)이 운영하는 전남 관광지 순환 버스 프로그램인 '남도한바퀴'가 지역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처음 마련된 '특별 겨울 테마상품'에는 첫 회(12일)부터 영암 도갑사·강진 놀토수산시장·강진 청자박물관 등을 둘러보는 코스가 매진되는 등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올해도 경기 어렵다" 부정적 전망 잇따라

광주상의 수출기업 조사 36% 답해

새해 지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 제조업체 뿐 아니라 수출기업들도 경기가 지난해보다 부진하거나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암울한 경제 전망을 내놓고 있다.

16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역 수출기업 및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기업

104곳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수출전망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35.6%인 37개 업체가 지난해 하반기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31개(29.8%) 업체도 지난해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집계한 최근 5년간(1-9월) 광주 수출 실적을 비교한 결과, ▲2017년 112억8600만달러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016년 108억900만달러 ▲2015년 117억1300만달러 ▲2014년 118억9700만달러 등으로 가장 낮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전체 광주 수출 증가율도 감소세로 꺾일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결국 65.4%의 업체들이 올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한편, 광주상의가 지역 14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1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에서도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지난 2009년 1분기(60) 이후 최근 10년 간 가장 낮은 64를 기록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설 명절 5개 제수용품 유통이력신고제 점검

광주본부세관, 30일까지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증가가 예상되는 도라지 등 5개 제수용품에 대해 1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0일간 유통이력신고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통이력신고제도'란 외국의약품 수입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매업자 제외)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해 유통 단계별 거래명세를 양도 후 5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다. 이는 수입통관 이후 체계적인 유통이력 관리를 통해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바뀌는 것을 예방해 수입품거리의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점검사항은 유통이력 신고의무자

가 양도 후 5일 이내에 신고 대상품목의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유통이력 관련 장비 미기록·미보관 하는 행위다.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의무가 있는 업체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유통이력신고제도 홍보와 점검을 통해 설 명절 관련품목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유통기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통이력신고대상품목은 현재 냉동고추 등 39개 품목이나 오는 2월 1일부터는 냉동옥돔, 냉동멸치, 냉동 기름치, 꽃가루(화분)를 제외한 35개 품목으로 변경된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 째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 속옷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KCPBA 2016 한국소비자보호원 최우수브랜드대상
2011 프리엄브랜드대상
2011 프리엄브랜드대상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습성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다른욕구형 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 미세노산,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